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5, 야고보서 3:13-18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David Bower 박사와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차 야고보서 3:13-18 입니다 .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부분(3:1~4:12)의 중심에는 3:13~18이 있는데, 이는 하늘의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대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13절부터 14절까지의 권고와 15절부터 18절까지의 권고를 입증하는 대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교차론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면에서 긍정적인 사람, 즉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그의 선한 생활로 그의 사업과 지혜의 사업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사업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나 이와 반대로 너희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짓되게 하라. 그리고 실증에 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지독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수반되는 아래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지혜를 설명함으로써 실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이 ABBA를 설명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대조적으로, 다소 종속적인 방식으로 아래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가르치는 일의 또 다른 특징은 지혜입니다. 혀는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공식적인 도구입니다.

지혜에는 가르치는 물질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다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3.1에서 소개된 가르침에 대한 이 개념은 계속해서 존재하며 이 전체 부분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부 교사들과 아마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도 주장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야고보는 그들이 현명하고 이해력이 있다고 주장할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기에는 자랑, 즉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과 관련된 자랑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의 표현이며, 그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과 온갖 악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지혜의 참된 성격인 온유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선한 삶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속이지 말라. 물론, 지혜는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지혜가 전혀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아래에서 오는 지혜는 단지 말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이 그가 여기서 전개한 첫 번째 대조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 일종의 거짓 지혜에 대한 참 지혜입니다. 사실 그는 여기서도 이와 관련하여 거짓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차이점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활동적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아래에서 오는 것은 단지 말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지혜는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13절에서는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한 일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암시이며 2.18과의 명확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행함이 없이 지혜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에 대한 모든 주장에 거짓말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만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순한 말은 실제로는 공허한 자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거짓되지 마십시오. 진실에 충실합니다.

그 위에 있는 지혜는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오는 지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자랑이 특징입니다. 그는 선한 삶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속이지 말라. 진정한 지혜에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서 온유함은 물론 핵심 용어를 확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전통에서 온유함은 특히 한계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진실되고 정확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제한.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궁극성,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타당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거나 증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거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파악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획득, 파악.

그것은 독립과 자립에 반대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4장 7절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또한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실되고 정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참되고 정확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일종의 독립이나 자립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점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가 여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앞서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온유함, 즉 지혜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 독립과 독립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립. 그러나 또한 타인에 대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되고 정확한 인식, 특히 타인에 대한 자기의 한계는 폭력적이고 가혹한 자기주장 대신 평화로움과 부드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는 4.1부터 5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이 아닙니까? 너는 원하지만 갖지 못하므로 죽인다. 너희가 탐하여도 얻지 못하므로 싸우고 싸우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 온유함의 사업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너희가 탐하여도 얻지 못하므로 싸우고 싸우느니라. 당신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돈을 쓰라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사실 온유에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는 혐의 개념을 끌어들이며,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헛된

자랑으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부적절한 말의 문제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혐의 죄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가 자랑하는 자부심에 대해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고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조를 통해 15절과 16절에 있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대조를 통해 하늘 지혜의 특성에 대해 말합니다. .

그러나 그는 15장과 16장에서 땅의 지혜의 성격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속적이고 비영적이며 심지어 악마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우선 질투가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짓되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존재하는 곳에는 실제로 아래에서 오는 이 증거와 관련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행위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질투라는 단어는 젤로스(zelos)입니다. 실제로, 질투 또는 질투라는 단어는 여기서 질투를 뜻하는 그리스어 젤로스를 번역한 것보다 음역에 더 가깝습니다. Zelos는 실제로 열심과 관련이 있으며, 질투에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 자기에 대한 열심,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의 특권이 포함됩니다.

시기, 열심,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는 인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성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쟁,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에 대한 열심을 수반합니다.

이제 그는 특히 4.1에서 4까지의 공동체 관계 표현에 있어서 이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신성한

지혜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또한 그것은 실제로 자기 획득을 포함하는 이기적인 야망, 즉 에리테이아(eritheia)를 포함합니다. 이는 명성이나 지위, 그리고 소유물 측면에서 앞서 나가려는 욕구에 의해 자아를 위한 열심에서 자아 획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 두 가지, 특히 소유물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 이기적인 야망을 탐욕과 연결합니다(4:1-4). 그러나 그는 당신의 마음에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면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마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물론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지, 생각, 감정의 자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국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3.1부터 12까지 논의한 것처럼, 문제는 궁극적으로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회개를 요구합니다(4장 7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지혜는 본질적인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는 순전히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지적인 종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인지적인 종류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모두 함께 묶여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즉 성서 인류학에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합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본질적인 의지의 문제입니다. 품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는 또한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합당한 지혜인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항하여 땅에 속한 것으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묘사합니다.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 속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 적어도 야고보가 맴돌던 집단에서 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 중 하나는 초월적인 신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야고보가

여행하고 일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실제로 지혜를 신성한 현실, 초월적인 현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자랑에는 신성하거나 초월적인 실재이면서도 신성한 것의 특징이 전혀 없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실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초월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주장된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지만 땅에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런 지혜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하늘 지혜의 단순한 사본일 뿐이고, 그 점에서는 형편없는 사본일 뿐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모방하려는 기괴한 시도, 그 이상으로 영적이지 못한 자입니다. 프시케, 비영적 대 영적.

즉, 여기에서는 소문자 s가 사용되었지만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 즉 비영적 언어를 사용하면 실제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경우 내가 말했듯이 그 단어는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슈키케(psukike)라는 생각입니다. 이 지혜가 그토록 기괴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과 허무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3:2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을 바탕으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불과 몇 분 전에 Paul Rees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Paul Rees가 여기서 영적이지 못한 단어에 대해 말한 내용인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적 과정, 즉 다소 세련된 본능의 충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심령술사인 프수키코스(psukikos)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의 영어 단어인 심령술사가 유래되었습니다. 당신은 정신이 아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적 과정, 즉 다소 정제된 본능의 충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이 목록의 클라이맥스는 확실히 악마적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기 15절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16절). 사실 저는 15절의 맨 끝 부분에서 15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즉, 그가 말했듯이 허에 관한 것이 있고, 이런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도 그는 초월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활하고 개인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인생과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허의 파괴적인 힘을 지적하기 위해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는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가 있고 일반화와 온갖 악한 행실이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와 모든 사악한 행위.

이번에도 그는 여기서 명사인 아카타스타시아(Akatastasia), 혼돈(Chaos)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은 악마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에 관한 한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함, 온전함, 일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대인 악의 본질은 무질서, 혼돈에 있습니다.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무질서가 있을 것이며, 평화는 없고 모든 사악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즉 모든 사악한 행위를 설명한다는 사실이 제가 여기 3장 13절부터 16절부터 17장까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는 일반적이고 세부적이며 그가 3:1부터 12까지 설명하는 특정한 사악한 행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4:1부터 6까지와 4:1부터 6까지 논의할 것입니다. 4:11, 12. 그러나 진정한 지혜에는 이것이 포함되며, 물론 그는 17절과 18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하고, 매우 흥미로우며, 첫째로 순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온유하고, 열려 있습니다. 이성은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불확실함이나 불성실함이 없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묘사한 것과 같이 말하고 움직이며, 또한 이제 그가 행하는 것과 평행한 방식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행실의 무질서와 대조하여 18절에서 말합니다. 위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순결함입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싶어하며 단순히 우선 순위에 따라 순수함이 그 중심에 있다고 제안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명시적으로, 첫째로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것에서 나오며 순수함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가 순수함을 말할 때 이것이 순수하다고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글썄요, 우선 그는 문맥상 동기의 순수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서 야고보서가 하나님을 순수하신 분으로 묘사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이런 종류의 지혜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순수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기가 순수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1장 17절에도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우리 안에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경우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줍니다. 우리는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다른 어떤 욕망도 섞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열망이 포함됩니다. 이제 그때는 평화롭다고 그는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특히 18절에서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일을 상황에 따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에이레네.

그러나 신약성서의 에이레네 사용은 구약성서의 샬롬(칠십인역에서 에이레네로 번역됨)의 사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흔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개인 간의 화합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웰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웰빙과 관련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꽤 자주, 더 구체적으로는 대인 관계의 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샬롬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개인간 화합과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행복을 언급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히브리인의 마음 속에 뿌리깊은 가정을 반영합니다. 즉 행복이나 행복의 부족은 주로 관계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웰빙의 본질, 또는 적어도 웰빙 전반의 핵심은 평화로움입니다. 즉, 인간관계의 화합이다.

대인관계의 웰빙은 전체적 웰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중적인 평화의 의미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락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반대 측면, 즉 :1부터 6까지의 지역 사회 내 전쟁과 투쟁의 관점에서 이를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대인 관계의 조화 측면에서 평화 또는 평화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평화를 포함하여 총체적인 웰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가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는 분쟁, 분열된 사람, 분열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미 1.6, 실제로는 1.7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여 화평이 우리 마음에도 화평이 되게 하라 우리 내부의 일종의 내전을 수반하는 일종의 존재, 개인적 존재에 반대합니다. 이제 그는 이런 종류의 지혜도 온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평화와 관련된 것의 적어도 일부가 온화하고 감성적이며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의 조화라는 생각을 다시금 강화합니다.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 감정에 민감하고, 비전투적이며, 분노에 대해 반대하고, 전투적이며, 도발 시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린 마음이라고 일컬음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특성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이것을 이성에 열려 있는 것으로 번역합니다(Eupeithes). 말 그대로 잘 믿는다는 뜻, 잘 믿는다는 뜻이다.

즉, 쉽게 설득되거나 신뢰됩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책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증언인 신약성서에 기초하여 그가 말할 때 잘 믿는 것 또는 잘 믿는 것, 쉽게 설득된다는 관점에서 유페이테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뢰하는 그는 속기 쉽다는 느낌이나 부주의한 동의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는 그렇지 않은 것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에만 신뢰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속기 쉬움이나 부주의한 동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더 넓은 책의 맥락에 비추어 이것을 해석하고, 119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빨리 듣도록 하십시오.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 말하는 사람의 입장의 가치를 전제로 듣고, 그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 이제 제임스는 여기서 비합리주의와 폐쇄적인 마음, 즉 '나는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비합리주의와 폐쇄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야망과 질투, 일종의 자기중심주의의 결과입니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나는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과 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자비에 관해 이야기할 때 특히 2장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대한 좋고 따뜻한 감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비는 주로 감정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그가 묘사한 자비의 행위는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실제적인 공홀과 가난한 자와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요, 축적을 금하고 불확실함이 없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RSV가 이것을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불확실성이 없다면, 여기서의 단어는 실제로 의심할 여지 없이 아디아크리토스(Adiakritos)입니다.

사실, 그 단어의 형태가 1:6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의 다른 형태가 2장 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서로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 단어의 형태가 의심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편파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단어를 더 나은 번역 방법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맥상 볼 때, 그는 일종의 참된 믿음, 즉 지위나 지위, 부나 부족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함으로써 표현되는 일종의 참된 믿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하지 않음으로써 표현되는 일종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가장하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전체론에 대한 주요 야코비식, 제임스식 강조를 선택하여 자신과 다르게 자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분열된 사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다른 곳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일종의 일관성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 즉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제시하는 자아 사이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식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의 수확은 평안함으로 뿌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수확은 그가 앞서 언급한 열매 맺는 사업에 더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평화롭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그는 평화로움이라는 개념을 선택합니다. 먼저 순수하고 다음에는 평화롭습니다.

화평하게 심는 자는 화평하게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평화와 조화는 내부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무질서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온전함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파괴가 아닌 전체론적인 웰빙, 온전함, 건강 등을 의미합니다.

18절에는 실제로 일종의 암묵적인 권고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 목록 바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효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가 말한 이 모든 것, 즉 온유함, 이성에 대한 개방성, 자비로움, 선한 열매 맺기, 불확실성 없음, 불성실함 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역사회의 평화를 촉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평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중 일부, 위에서

오는 지혜의 이러한 특성 중 일부는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유함과 관련하여, 온화함을 추상화하고 온화함을 절대화하고 여기 18절에 설명된 대로 표현과 효과 측면에서 온유함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사람들의 죄에 맞서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온유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여러분 중 누구든지 진리에서 방황하고 누군가가 그를 다시 데려오면(실제로는 필연적으로 약간의 대립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을 자기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책을 끝맺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허다한 죄를 덮으소서. 또는 열린 마음은 어떤 분별력도 없이 장창 아래로 내려오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공동체에 파괴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온전함과 평화로움은 진리와 올바른 교리에 대한 관심을 통해 달성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단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열린 마음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교리를 포함한 그 진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역 사회.

글쎄요, 이것은 우리를 4장의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가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래에서 오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있으리라. 그리고 물론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묘사했던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잠시 멈춰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David Bower 박사와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25회차 야고보서 3:13-18 입니다 .